

8일 Market Index			
코스피	7484.41	코스닥	911.39
	(-676.18)		(-91.05)
금리	3.940	환율	1533.75
	(+0.058)		(-5.35)



“내달 부동산稅 정비… 반도체 초과세수, 장기투자세에 써야”

李 대통령, 취임 1주년 간담회
6·3선거 패배에도 부동산 기조 일관
보유세 부담 확대 등 세계개편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투기·투자 수요는 누르고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6·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한 것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정부의 대응은 일관된다는 의미다.

특히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언급하며 세제 개편이 있을 것을 예고했다. 아울러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아직 '저평가'된 상태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으며, 반도체 특수로 인한 초과세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선잠재성장회복을 위한 '장기 투자'에 써야 한다고도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수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밝혔다. 여기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이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방향 질문에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감안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제일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면서 오는 7월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를 정비하면서 투기 목적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법 개정안 등을 마련한다. 올해 중 보유세를 포함해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집주인들이)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공급은 신속

·재건축·재개발을 가리지 않고 빠르게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1년간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에는 “부동산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저는 상수였다고 본다”며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저는 상승 압력을 잘 나름 막아왔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에는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 눌러 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초부터 직접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메시지를 낸 것이, 오히려 좋은 영향을 줬다고 평가한 셈이다. 여당의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는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코스피 8% 폭락 ‘블랙 먼데이’ 공습

삼성전자(1위)부터 기아(10위)까지, 8일 국내 증시는 시가총액 상위 10대 종목(우선주 제외)이 전부 파란색(주가 하락)으로 물들며 ‘블랙 먼데이’(검은 월요일)를 맞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와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마이크로 등 반도체주 급락 여파가 아시아 증시를 무너뜨렸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8.29% 떨어진 7484.41로, 코스닥 지수는 9.08% 급락한 911.39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 증가가 8000선을 하회한 것은 지난달 22일(7847.71) 이후 9거래일 만이다. 이날 하루 증발한 코스피 시가총액은 550조원에 달한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서킷브레이커도 발동했다. 역대로는 9번째 발동이다. 올해 들어 11번째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했다. 일본 닛케이평균(-3.85%)를 비롯해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대만 가권지수 등 아시아 증시가 동반 하락했지만 특히 한국 증시의 낙폭이 컸다. <관련기사 3면>

총수들과 연쇄회담… 젠슨 황, 韓서 ‘AI 제국’ 판 짠다

황 CEO, 3박4일 일정 마무리
AI와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
피지컬 AI 주도권 확보 속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그룹 양재사옥에서 4족 보행로봇 스폿(Spot)과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 모베드(MobED)에 사인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시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3박4일 방한 기간 동안 삼성·LG·현대차·SK·두산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만남을 갖고 ‘AI 동맹’을 본격화했다.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전력 인프라, 자율주행 등 AI 생태계 확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피지컬 AI 시대 주도권 확보를 위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한국을 찾은 황 CEO는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미래 AI 방향성을 논의했다. 세계 시장에서 차별화된 제조업 경쟁력을 갖춘 한국을 미래 핵심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관련기사 4·9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태원 SK 그룹 회장을 만난 황 CEO는 “우리는 매년 SK하이닉스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품을 조달하고 구매하고 있으며, 이 규모는 앞으로 상당히 커질 것”이라면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가장 중요한 메모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 네트워크는 국가 AI 인프라로 진화하며 사람과 기업,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통신망이 AI 클라우드의 근간이 되고 있다”며 “SK텔레콤은 엔비디아 DSX 플랫폼을 통해 대규모 AI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기업과

산업계에 에이전트 AI, 엔터프라이즈 AI, 피지컬 AI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중심으로 진행되던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그룹 차원의 AI 팩토리로 확장할 계획이다. 또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클라우드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차세대 AI 메모리를 공동 개발하는 등 장기 파트너십도 강화한다.

최 회장은 “그동안의 협력은 주로 메모리 분야에 집중됐지만 앞으로는 SK그룹

차원으로 협력 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엔비디아와 함께 미래 AI 팩토리를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했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로 이동한 황 CEO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피지컬 AI와 AI 인프라(AIDC), 모빌리티 분야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양사는 로보틱스와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차세대 AI 산업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AI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엔비디아의 풀스택(Full-stack) 엔드투엔드(End-to-End) AI 플랫폼과 가전, 로

봇, 모빌리티 부품, 스마트 공간, AI 인프라 분야에서 축적한 LG그룹의 역량을 결합해 AI 모델 개발부터 로봇 학습·운영, 디지털 트윈 구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차세대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황 CEO는 이날 오후 현대차그룹 양재사옥을 방문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만남을 갖고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협력을 강화기로 했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 급락에
美 금리인상 우려 등 증시 덮쳐
9거래일 만에 증가 8000 하회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종목은 모두 하락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보다 10.18% 하락한 29만5500원에 마감하며 30만원선이 붕괴됐다. SK하이닉스 주가도 약 7.68% 떨어진 191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증시 ‘블랙 먼데이’는 지난주 미국 반도체주의 급락과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주요 반도체 종목 30개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는 10.26% 급락하며 2020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한 바 있다. 코스피는 SOX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또 시장 예상을 밑도는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개별 기업의 부진을 넘어 빅테크의 AI 투자 속도조절론으로 번졌다. 다만, 이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줄이면서 4.1원 내린 달러당 1535.0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리도 경계 수위를 훌쩍 뛰어넘으며 발작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일보다 5.8bp(1bp=0.01%포인트) 상승한 연 3.940%를 기록했다. 지난 2023년 11월 2일(연 3.979%)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 ▲한동훈 “李, 공소취소하고 싶다는 뜻 분명히 해…공소취소하면 탄핵 나설 것” /사진 뉴시스
- ▲김종인 “정원오 패인은 李 대통령 ‘부동산’ 관련 강력 발언 영향”

- ▲정부, ‘주민자치회’ 위원 거주요건 삭제…외국인 참여 허용
- ▲“선거 승리하면 다시 오겠다” 김상욱, 당선증 들고 국립5·18민주묘지 찾아

- ▲양대노총,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명문화 촉구
- ▲輿 進대 준비논의 착수…‘서울 패배’ 정청래 책 임론 속 당권 경쟁 서막